

2009-7

2009년 2월 15일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서

【주현절 후 제6주】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7(통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얼어붙어있던 대지를 녹이시고 봄을 재촉하는 비를 내려주셔서 새로운 생기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욕망으로 얼어붙고 탐욕으로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에도 주님의 은총의 햇살과 은혜의 빛줄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강퍅했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주십시오.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품고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던 선지자의 외침을 외면하는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어떤 가치들보다 재물과 권력의 가치를 숭상하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릇된 가치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과 평화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고전10:13	인도자
♠ 교 독 문	..... 54. 시편126	다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 I. 이명희 집사 II. 한상익 장로	
응답송	.....	찬양대
찬송	..... 532(통323). 주께로 한 걸음씩	다함께
성경봉독	..... I. 마5:14-16 II. 막4:35-41	인도자 박홍재 권사
찬양	.....	찬양대
말씀	..... I. 빛은 계속 나아간다 II. 바람을 꾸짖으시다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함께

찬 송	406(통464). 곤한 내 영흔	다함께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겹칠 때도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죽음까지 승리하셨음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의 활동영역을 마음대로 제한하고 살던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주님께서는 거친 파도와 폭풍도 잠잠케 하신 분임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주십시오. 아멘.

♠ 찬 양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성도의 교제	기도 : 김재영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김기석 목사	장성호 선생 김인걸 장로	인도자 조문규 권사

2월	영접위원	한상익 김중수 문홍일 이순정 이형숙 권미숙
	헌금위원	조병무 정경례(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 믿/을/으/조/읽/는/글/

### 공동체의 일상생활

공동체가 살아 있다는 표징 가운데 하나는 구체적인 일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결 상태, 비품 배치, 화분 배열, 식탁 준비 같은 것도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반영한다. 구체적인 집안일들을 성가시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시간 보내기를 더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지르고 치우고 하는 일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오만 가지 일이 하느님께서 우리의 상호 통교를 가능하게 하려고 내려 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요리와 마루 청소는 우리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가장 미천한 일을 이런 시야에서 보게 되면, 모든 일이 친교가 되고 축제도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베푸는 겸허하고 구체적인 선물을 감지하고 그에 대해 감사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다른 사람의 선물을 인정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절대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들의 선물에 대해서는 한 번의 미소와 '고맙다'는 한 마디 말이면 족하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사랑을 쏟아 넣으면 그 일은 아름다워지고 그 결과 역시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난다. 추한 공동체에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최고의 아름다움은 모든 것이 사람들 사이의 만남과 하느님과의 만남을 지향하는 자리, 가식 없고 단순한 자리에 내재한다. 우리가 집과 정원을 어떻게 돌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연 우리가 긴장 없는 편안함과 평화를 맛보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집이란 둥지이다. 그것은 몸의 연장(延長)과도 같다. 우리는 때때로 환경이 해방과 내적 성장에 미치는 작용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랑이란 특별한 일이나 영웅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랑이란 온유한 마음으로 평범한 일을 수행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예수님이 서른 해를 당신의 모친과 요셉과 함께 나자렛에서 숨어 살으셨다는 사실에 경이감을 느낀다. 그때까지는 그 누구도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몰랐다. 그분은 가정 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참된 행복>에 입각하여 겸손하게 영위하셨다. 그분은 목공일을 하시면서 유대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사건을 당신 아버지께 대한 사랑으로 수습하셨다.

그분은 기쁜 소식을 몸소 실천하신 이후에 비로소 밖으로 나가 그것을 설파하셨다. 그분의 일생에서 이 두 번째 시기는 당신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표징을 통해 당신의 권위를 확인시키고자 노력하신 투쟁의 시기였다. 내가 보기에 자기가 실천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지 않은 것같다. 그들은 직접 실천해 보지 않은 탓으로 실현 가능성마저 모르면서 <훌륭한 삶>에 대한 이론을 제기한다. 예수님의 숨은 생활이야말로 모든 공동체 생활의 귀감이 된다.

예수님의 생활이 세 번째 단계에 접어들면, 그분의 벗들이 그분을 저버리게 되고 그분은 당신 공동체의 바깥 사람들한테서 박해를 받게 된다. 공동체에 투신한 사람 역시 이 세 번째 시기를 거쳐야 하는 때가 있다.

일을 조용하고 정답게, 겸손한 자세로 훌륭하게 해내는 감각을 지닌 공동체는 하느님의 현존이 생생하게 살아계신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런 공동체의 구성원은 모두가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생활에 따르는 온갖 일을 불평 없이 온유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다. 그들은 봉사하면서 행복을 느낄 것이며, 자신에 앞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느님을 비롯하여 타인과 자연과 더불어 평화로운 통교를 나누며, 하느님이 그들 안에 사시듯이 하느님 안에서 살 것이다. 그리하여 공동체는 철저한 관상(觀想)적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 ■ 마/음/으/초/읽/는/글

# 마른 뼈의 기도

당신의 신선한 바람을 보내주십시오.  
생명의 물기 머금은 신선한 당신의 바람은  
지금 어느 강가의 벼드나무 숲에서  
비둘기 깃털 나부끼며 한가로이 노닐고 계시옵니까?

어서 오십시오. 당신은 어서 오십시오.  
후미진 이 골짜기 너무 오랫동안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마른 뼈는  
제 무게에 눌려 자꾸만 자꾸만 가라앉습니다.

아아, 당신의 바람이여.  
서쪽 하늘 가로질러 급히 오십시오.  
당신의 생명, 바람으로 불어  
벼려진 해골의 콧구멍에 화살처럼 박히면  
뼈는 뼈와 더불어 춤추며 비린내 나는 살을 찾아  
손을 잡고 춤을 추며 푸른 갈대 꺾여 당신을 노래하리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마른 해골  
잊혀진 세월처럼 누워있는 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생명의 물기 머금은  
신선한 바람으로 불어오십시오.

- 이현주

## ◇ 주님의 교회를 설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기석	부담임목사	김재홍	원로전도사	박옥식
전 도 사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김준우
원로장로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한인철
장    로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방문성	양재성
지    회	윤주원	안홍숙		김인걸	
차량 및 교회 관리	오진훈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도서관장	박혜경

## ◇ 현금영수기 ◇

### 십일조현금:

김용길 최영혜 김훈동 유경순 박규석 박경선 박창운 허정윤 배삼순  
권호진 백묘현 오자영 황지현 옥귀희 윤효숙 박정숙 전혜리 박시내  
문복순

### 월정현금:

권미정 김미순 김종문 지명주 문금석 박준규 서지영 이재문 윤주원  
최윤선 이갑재 이봉배 이인웅 배부례 임원민 임수연 윤여민 임보람  
문희창

### 감사현금:

손성현 방문성 박혜경 김남종 오복순 김용길 최영혜 한슬기 박창운  
허정윤 배근수 김금순 이형숙 김민정 전혜리 황경순 김중수 이순정  
천승호 백혜숙 권미순 이유일 김미희 무명

### 녹색꿈 현금:

권혁순 박혜경 전혜리 장원호 무명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조순덕	장혜숙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김미순	배부례
안디옥	임정자	박미영	이은옥	이재문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박정숙	박경선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안정숙	문금석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박홍재	이인섭
시온	박효선	허정윤	허정윤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김재광	이기분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이순정	이순정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이정은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정현주	임수연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백혜숙	정영선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유경순	김명희
고린도	이영란	윤정화	이영란	방극숙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백혜숙	박혜경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새교우 소개

정재수(1남선교회) 이희자(1여선교회) 장예원(청년부) 문성환(청년부)  
오 흥(1남선교회) 원인해(3여선교회) 김유선(8여선교회) 성지현(8여선교회)

◀ 2009년 교사 명단 ▶

## 교육부장 및 교장 : 김인걸

유아유치부 : 최희영 이수정 최문희

아동부 : 곽권희(부장) 이명희 윤윤 조재훈 박경선 오재환 임유미

중 고 등부 : 황경순(부장) 장성호 김민주 한성간

## ◆ 집회 안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